

친구 너에게

CCC 오진탁 김은경 목사의 기도 편지 2025-3호

봄맞이꽃

추운 겨울이 있어 꽃은 더 아름답게 피고
즐기가 솔잎처럼 가늘어도 꽃을 피울 수 있다며
작은 꽃을 나지막하게라도 피우면
세상은 또 별처럼 반짝거릴 것이라며

많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높다고 귀한 것은 더욱 아닐 것이라며
나로 인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봄을 화사하게 맞이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고 사는 보람이 아니겠느냐고

귀여운 꽃으로 말하는 봄맞이꽃
고독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며

풍부한 삶을 바라기보다
풍요를 누리는 봄맞이꽃처럼 살고 싶다

-김유현-

시집 「들꽃을 엿듣다」 (2007) 중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

꽃피는 3월, 따스한 봄기운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이 계절에
주님의 평안이 동역자님의 삶과 일과 사역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교회와 직장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님의
사랑과 동역이 있었기에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함으로 그들 가운 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3월에도 여러 다양한 방식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교육과 훈련
섬김의 기회를 가졌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목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줄고 걱정을 덜 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으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며

목사와 간사라도 분주한 삶 속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걸 깨닫습니다. 저와 제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진리 위에 세우고,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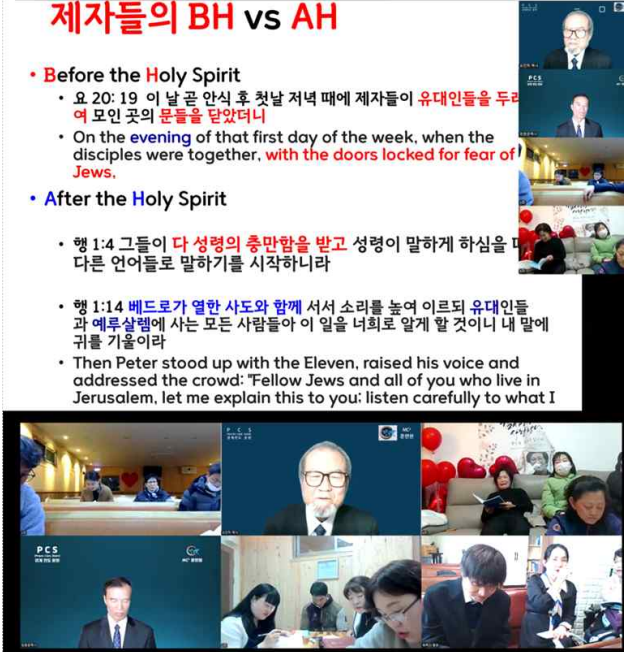

새봄을 맞아 동역자님의 삶과 사역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3월 한 달 이렇게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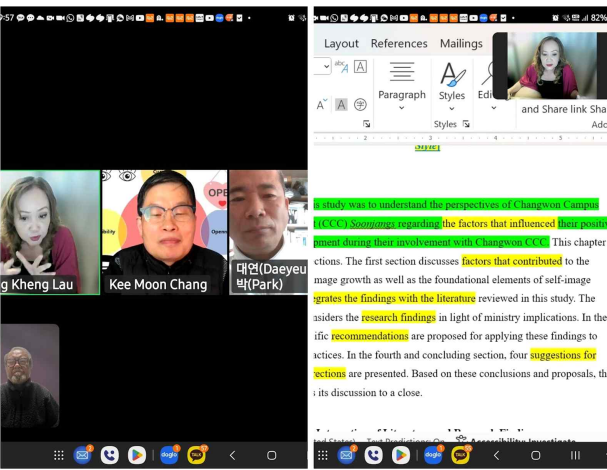






2 주일	나눔교회 장애인 부 성경공부		<p>주일엔 공 예배 후에 컨테이너에 마련된 방에서 김밥을 먹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최대한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기 보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더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부할 때마다 한 바탕씩 웃음 꽃이 피곤 합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작은 교회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주일에 가장 기대되고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녹음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이 시간이 작은 교회 가족들 에겐 중요한 시간입니다.</p>
4-5 화수	CCC본부 HR팀과 LD팀 BPMT강의	  	<p>오래전에 미국 컨설팅 회사의 팀빌딩 프로그램(Building Powerful Ministry Team)을 국제 CCC가 도입해 기독교 버전으로 바꿔서 한국에서 훈련할 때 저도 1기로 참가해 자격증을 딴 게 한국 CCC의 인사관리 팀(HR: Human Resources)과 간사 지도력 개발 팀(LD: Leadership Development) 간사들이 이번 훈련을 제게 부탁한 이유였습니다. 국제 CCC에서 재정사역을 하는 이명춘 간사님과 함께 강의를 맡아서 제가 6과에 걸친 이론과 원리를(Common Purpose, Clear Rols, Accepted Leadership, Effective Process, Solid Relationship, Excellent Communication), 이 간사님이 실습과 적용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와 토론 점검, 실습이 어우러져 있어 팀빌딩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훈련 후에 간사님들이 더 좋은 팀워크를 발휘해 사역에도 삶에도 만족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p>

	<p>최수남 목사님 만남</p>		<p>한국 Fatherhood 사역(남아공의 카시 목사님이 시작한 The World Needs A Father 사역을 한국에 도입한 사역) 책임자 시며 보배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수남 목사님께서 dhfosakss에 찾아오셔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번역해 처음부터 그 사역에 참여해왔지만 자녀가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도울수가 없어 지금은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 동안 ㅁ 해오신 사역 이야기, 교회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 습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 다는 건 큰 복입니다.</p>
<p>5 수</p>	<p>유수련 선교사 만남</p>	 <p>TO. 진탁간사님께.</p> <p>간사님 ~!!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소년시절부터 함께 해라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남을 요청하면 언제나 만나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간사님을 저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예요! 이제 저는 다쳐 그 땅으로 떠나지만, 간사님께 배운 것들 신중히 간직하여 살아야겠습니다. ~ 부디 늘 평복안에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nom. 수련, 선교사 em</p>	<p>한동대 재학시절 예수 전도단에서 활약했던 수련 학생이 CCC 일본 단기 선교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숙 훈련 때 제가 한 성경 적 세계관 강의를 듣고 저를 찾아온 것이 만남의 계기가 되어 그 후로 수많은 질문과 갈등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 해 왔는데 CCC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수련이가 하나님 은혜 로 이젠 어느새 CCC 전임 간사가 되었고 또 선교 훈련까지 마 쳐 일본 선교사로 떠나는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CCC 간사를 하면서 본부 사역을 해 왔던 탓에 캠퍼스 사 역을 못해 제자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찾아와 관계가 이 어져 제자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수련 선교사가 일본인 CCC 간사와 교제 중이라 내년 쯤 결혼식을 할 것 같은 데 저더러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계속되어 일본의 미 래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p>

8토	지도교수 피드백 논문 4장 수정	CHAPTER 5: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지도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 논문 4장을 수정해서 다시 교수님께 보냈습니다. 4장을 고치다보니 5장도 다시 썼는데 처음 쓴 것과는 내용이 거의 다 달라져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9주일	PCS 온라인 강의 (천안 두루 성결교회)	<p>제자들의 BH vs A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fore the Holy Spir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 20: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Jews. • After the Holy Spir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 1: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행 1: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 Then Peter stood up with the Eleven, raised his voice and addressed the crowd: "Fellow Jews and all of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me explain this to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I 	작년에 제가 JESUS FESTIVAL 팀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PCS 관계전도 훈련을 소개했다고 말씀드려었지요. 그때 천안 지역에서 Jesus Festival에 참석하셨던 목사님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제게 교회 전체로 PCS 관계전도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훈련을 해드리기로 결정해서 금년 2월에서 3월까지 9주간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훈련을 요청하셔서 저희 부서 훈련 팀장인 최동문 간사님이 주관하셔서 훈련을 진행했고 저희 부서 간사 몇 명이 주차별로 돌아가며 강의했습니다. 저도 5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맡아 이날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한 강의라 천안 두루 성결교회 성도들은 예배당과 소그룹실, 회의실 등으로 흩어져 훈련을 받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강의하는 저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새발람이 불고 관계 전도에 새로운 불이 붙기를 기도합니다.
10 월	카이캉 목사 고시 면접 지원		카이캉 목사고시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양재동 핫볼트리니티 신학학원 강의실에서 대면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실사를 담당하는 저와 이규택 목사님도 면접자 출석 확인, 장소 안내 이름표 배부와 수거, 뒷정리 등으로 섬겼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간대별로 다르게 조별로 총 149명이 면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합격한 분들은 4월 목사 안수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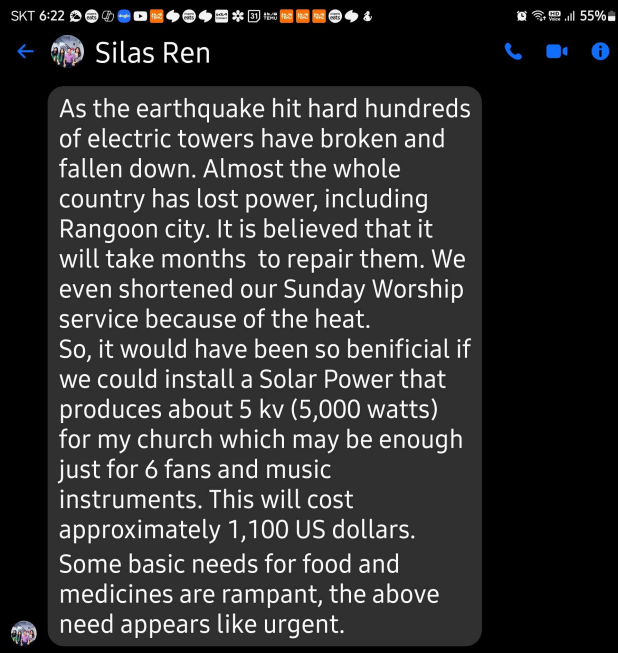
<p>11화</p>	<p>CCC 전임 간사 정년 퇴임식</p>		<p>올해 만 70세가 되는 간사님 6분이 정년을 맞아 CCC 본부 대강당에서 후배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CCC 인사부(HR) 주관으로 퇴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어래 간사하신 분이 1974년 EXPLO74 때 김준곤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 간사가 되신 김경란 간사님이신 데 전임 간사를 하신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윤승록, 신종곤, 이권상, 이영호, 김진철 간사님도 40년 넘게 사역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저의 논문을 위해 인터뷰해 주신 분도 2분이나 은퇴를 하셔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더 각별했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년이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바전과 열정은 그대로이나 나이로 인해 은퇴하셔야 하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할과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이분들 한 분한분 귀하게 쓰실 걸 믿고 모든 분을 축복해 드렸습니다.</p>
<p>14 금</p>	<p>부서 기도회 나사렛 형제와 교제 및 운동</p>		<p>서초동 풍성한 교회에서 부서 기도회를 가진 후 특별히 서울지구 CCC 나사렛인 문영배 순장이 우리 부서 회의에 함께 참석해서 4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서 PCS 관계전도 훈련이 나사렛 회장단과 앞으로의 나사렛 활더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할지를 논오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계사인 형제는 졸업 후 계속해서 캠퍼스를 찾아가 (서강대) CCC 후배들을 격려하며 지원해 오고 있다며 CCC 나사렛들이 캠퍼스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애끓는 마음으로 열정을 토하고 부서 간사들 점심을 사주었습니다. 주님심 후에는 반포 종합운동장에 가서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도모했습니다.</p>

18-19 화수	고향 어머니 찾아 뵙	  	<p>어머님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 고향에 찾아뵈었습니다. 마침 인천에 사는 둘째와 막내 동생도 함께 내려와, 명절 외에는 보기 힘든 형제간의 만남까지 이뤄져 더욱 뜻깊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은 채 유모차를 밀고 밭에 나가 계셨습니다. 밤에는 치매로 인한 망상과 불안으로 응급비상벨을 누르셔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지만, 낮에는 밭일을 하며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웃에 계신 요양보호사님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도와주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저녁에는 어머님과 동생들,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이웃 마을 고깃집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들을 보셔서인지 어머니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살아 있을 때 잘해"라는 노릇 말처럼, 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아립니다.</p>
19 수	Dr Ying Kheng Law 논문 지도 받음		<p>어머님 집에 가 있는 데 갑자기 싱가포르에 계시는 Dr Ying Kheng Law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아침에 줌으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논문을 제출한 다른 간사들이 여러 번 논문이 Examiners 들에게 Reject되는 걸 보시고 아직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은 저와 다른 두 간사를 불러 미리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 으러 번 저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를 가르쳐주시는 데 온 힘을 다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최종 논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우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p>

23 주일	옥상 화분 흙갈이		<p>저희 부부가 건축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18층, 꼭대기 층에 단독세대로 삽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옥상을 거의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누군가 사용하던 화분에도 재작년부터가 부추, 고추, 상추, 토마토 등을 심어 가꾸어 조금씩 뜯어 먹고 따 먹고 했었습니다.</p> <p>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 완전한 봄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화분 흙갈이를 했습니다. 부추는 어느새 싹이 다 올라와 물만 주었고 나머지 화분들은 흙을 다 쏟아 뒤집어 흙을 아래위로 섞어 주었습니다. 물 빠짐이 잘 안된 화분 아래 흙은 까맣게 죽어 있어서 다른 흙들과 섞어서 다시 화분에 담았습니다. 이제 모종을 사서 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옥상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게 될까요?</p>
26 수 28 금	논문 최종 제출 지도교수 승인	<div style="text-align: center;">  AGST ALLIANCE <small>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lliance</smal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EAST <small>East Asia School of Theology</small> </div> <p style="text-align: center;">Declaration on Doctor of Ministry Dissertation Submission</p> <p style="text-align: center;"><i>The <u>DMin</u> student/candidate and the supervisor(s) need to sign this form (or give assent to if transmitted electronically)</i></p> <p><u>DMin</u> Student's/Candidate's Declaration:</p> <p><i>My supervisor(s) has(have) seen a copy of my final dissertation before I have submitted it.</i></p> <p> Student's/candidate's name: Oh Jin Tak</p> <p>Date (dd/mm/yyyy): 30 / March / 2025</p> <p>First Supervisor's Declaration:</p> <p><i>I have seen the above student's/candidate's final thesis/dissertation before it has been submitted.</i></p> <p>Supervisor's name: Dr Roland Tan</p> <p>Date (dd/mm/yyyy): 30 / March / 2025</p>	<p>드디어 논문 5장까지 모두 작성해 지도교수님께 제출드렸고, 금요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도교수님의 사명이 담긴 문서와 함께 제1 감수자인 Dr. Ying Kheng 교수님께 논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드백과 수정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제2 감수자에게 넘어가 다시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두 분의 Final Examiner에게 제출되어 다시 피드백과 수정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는 보통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여러 차례의 수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p>

<p>28 금</p>	<p>부서 기도회 및 전주 팔복교회 PCS 관계전도 확신 사례 발표 들음</p>		<p>오전에 부서 기도회와 회의를 마치고 전주 팔복교회에서 어떻게 PCS관계 전도 훈련을 전 교인 상대로 실시했고 그 효과는 어떠하며 현재 PCS관계 전도를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담당 목사님도 CCC 출신이라 더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온 라인으로 훈련하고 있는 우리 부서도 향후 어떻게 이 PCS관계전도 훈련을 교회를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또 개 교회의 전도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정착하도록 도울 것인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단체와 지역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 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모델이 더 많이 만들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p>
<p>31월</p>	<p>카이캄 실사 진주 브릿지 크리스천 학교</p>		<p>3월의 마지막 날 한국에서 KTX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인 진주(가는 데만 3시간 30분)역에 내려 가시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려 더 이상 길이 없는 간 골짜기 진주 명석면에 있는 대안 학교 BRIDGE 크리스천 학교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녘 들녘엔 이미 봄이 지천으로 와 있었고 진달래 개 나리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강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산야는 연두색의 간지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와 택시를 합쳐 거의 11시간 만에 어둠 내린 서울역에 도착하니 온몸이 많이 피곤 했으나 그래도 흐드러진 꽃 3월 봄 여행이라 생각하니 기분은 좋았습니다.</p>

	<p>카이캉 실사</p>		<p>3월에도 한국의 여러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을 찾아가 그들의 사역과 꿈과 기도와 바람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이캉이 한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든든히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에 이버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사를 다니며 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p> <p>3월에도 실사위원인 이규택 목사님과 함께 카이캉 가입을 신청한 교회와 선교단체들 가운데 서울 관악구 아름다운 교회 선요한 목사, 충남 서산 세빛 교회 김진종 목사, 서울 마포 B103 교회 유정재 목사, 인천 평강 교회 박희정 목사, 인천 청목원 선교교회 박신일 목사, 구리고 진주 브릿지 크리스천 학교 이기성 목사를 만나 교제하며 기도하며 실사를 했습니다.</p>
	<p>서울대병원 신우회 성경공부</p>		<p>서울대학교 병원 신우회 선생님들과의 목요일 저녁 성경공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 드리듯이 선생님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저의 영성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저의 습성을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제게 허락하셔서 주중에 꼭 준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미리 묵상하며 생각하며 저 자신을 성찰하게 하신 후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제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못하게 저를 하나님 말씀 묶어두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의 참여가 제게도 기다림의 설렘과 기도하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지나고 있습니다.</p>

	<p>통장 잔고 0원의 기적</p>		<p>지난 달 통장 잔액란에 0이 찍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동역자님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편지를 읽으신 동역자님 몇 분이 통장 잔고 0을 다른 숫자로 채우시겠다며 힘에 지날 정도로 생각될 만큼 현금하셔서 그동안 밀렸던 모든 공과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다 납부하고도 몇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없는 자와 현실의 필요 사이에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시요, 뉘돌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의 손을 내미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동역자님이 계셨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시길 축복합니다.</p>
	<p>미얀마를 위한 기도와 후원</p>		<p>들으신 대로 지금 미얀마는 내전으로 국민의 삶이 궁핍해진데다 이번 규모 7.7의 강진으로 사회의 기반 시설이 거의 무너지고 생존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핫볼트리니티에서 같이 신학공부를 하고 졸업 후 미얀마로 돌아가 현재 미얀마에서 목회하고 있는 Silans Reen 목사에게 긴급한 필요 물품을 요청하라고 했더니 전기가 끊어져 선풍기 가동이 안 되면 교회 안이 너무 더워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 키보드, 어린이와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을 위한 프로젝터 사용을 위해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가 가장 시급하며(현지 가격으로 약 US 1100달러 정도 한답니다) 그 외 기타 의약품이나 식품이 필요하답니다. 저희 부부가 모금하는 중에 있는데 동역자님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면 제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823240284063, 우리은행24805963012003)</p>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전국의 산불로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속히 이뤄지게 하시고, 미얀마 Silas Ren 목사가 군부통치와 지진이라는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양 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도움이 신속하게 주어지게 하시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하소서
2. 제출한 논문 초기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반부터 교수님의 철저한 수정과 재작성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 못지않은 노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4차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모든 수정 요구를 잘 파악해 정확하게 수정해서 제출함으로 이 기간을 내용과 형식 문체에 대한 배움과 숙달의 과정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3. 논문 쓰느라 느슨해진 영성 관리에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 통독(6월에 종료예정)을 충실하게 하고 기도의 시간과 깊이를 더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증진에 힘을 쏟게 하소서.
4. 3/30 걷기 운동을 시작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게 하시고 약해진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활동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하소서
5. 어머님 남은 생애가 더 평안하고 기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사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시탁 오남탁 오성탁과 가족들 모두 구원의 은혜를 속히 누리게 하소서

2025년 3월 31일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는 CCC 사역 동역자 오진탁 김은경 목사 올림